

교회소식

아동부 중고등부 수련회가 어제부터 오늘까지 팀수양관 (불광동 소재)에서 열립니다. 학생들은 오후 2시쯤 교회로 돌아옵니다.

8월 폐제 찬양과 기도모임이 3일(수) 저녁 7:30 교육관에서 열립니다.

휴가철에 여행 가서 머물렀던 곳을 깨끗이 치웁시다. 그것이 자연과 우리 마음을 깨끗이 하는 길입니다.

오늘 식당 봉사 : 김금순 이순정 김필순 한민경
 다음 주 식당봉사 : 박혜경 조항미 김민화 윤형석 이선화 차혜심 홍성식 박석희
 오늘설거지봉사 : 청파7속
 다음주설거지봉사 : 2남선교회
 커피 판매 봉사 : 4남선교회

· 집 회 안 내 ·

부별	시간	장소	부별	시간	장소
유 아 부	10:50	유아부실	1부 예배	09:30	대예배실
유 처 부	10:50	유처부실	2부 예배	11:00	대예배실
유초등부	10:50	교육관	성서학당	13:30	대예배실
중고등부	10:40	중고등부실	수요집회	11:00	교육관
청년회	13:30	청년회실	새벽기도회	06:00	교육관

청파교회 페이스북 <https://www.facebook.com/groups/chungpa>



언제나 어디서나 그리스도인

우리의
 주님의
 오
 모으로
 상소서

하나님께서로 나아가는 한적한 오솔길
 사랑과 나눔을 배우고 실천하는곳
 청파교회는 함께하는 공동체입니다

주일 낮 예배 순서

[강림 후 제 11주]

인도 1부 : 김재흥 목사
2부 : 김재흥 목사

- 전 주 반주자
- 임재의 기원 주님 나라(×3) 다 함께
- 예배로의 부름 인도자
- ♣ 경배의 찬송 29. 성도여 다 함께 다 함께
- ♣ 공동기도 다 함께

자비하신 하나님, 성실한 손길로 우리를 다듬어 가시는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하루가 다르게 아름답게 익어가는 포도송이를 보며 마음의 부끄러움을 느낍니다. 햇살의 은총을 온전히 제 몸에 받아들여 자기다움을 찾아가는 열매처럼, 우리도 날마다 주님의 은혜를 마음에 받아들여 아름다운 빛과 맛을 더해가는 이가 되게 해주십시오.

주님, 잔인하고 끔찍한 소식들이 늘어만 가는 이 세상을 위해 기도합니다. 견잡을 수 없는 질병처럼 잔인한 폭력과 테러가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그 흐름을 바꿀 수 있는 힘을 주십시오. 폭력과 절망에 맞서 사랑과 소망의 기운을 전하는 이가 되게 도와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립니다. 아멘.

- ♣ 참회의 침묵기도 다 함께
- ♣ 위로의 말씀 호12:5,6 인도자
- ♣ 교 독 문 81. 에베소서 4장 다 함께
- ♣ 영 광 송 1. 만복의 근원 하나님 다 함께
- 2부대표기도 김정민 장로
- 2부응 답 송 찬양대
- 2부찬 양 484. 내 맘의 주여 다 함께
- ♣ 성경봉독 막 15:42-47 I. 인도자
II. 이선화 집사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봉독자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 함께
- 찬 양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양하라 찬양대
- 말 씬 아리마대 사람 요셉 김기석 목사
- 거듭기도 다함께

· 헌금 영수기 및 속회 보고 ·

십일조 및 월정헌금

강신철	이혜정	고속이	곽상준	최경미	김근종	정옥영	김기석	김희우	김기성
이은정	김병대	김승현	김수진	김애순	김영호	김용진	김기석	김희우	김기성
이선화	김정민	이혜령	김중수	이순정	김지윤	김정우	김해선	김현주	김인석
김희선	김희진	박홍재	문홍일	박범희	박미영	박병구	박석희	조항미	박옥식
박인혁	박준희	이기분	배재경	이수정	송인선	신진식	변혜정	양상철	박재란
오미숙	우순덕	윤순우	이경남	이계선	이소순	이민범	공재량	이부근	이상준
이성범	권현숙	이응석	이은경	임고은	오재형	김승동	백혜숙	임영	정경례
임형욱	장동훈	정은선	장혜정	정복순	정원석	김현영	조관행	홍선희	최미자
최윤화	최은미	최종원	최진성	최영은	최현	최형균	강경화	하현철	최성애
한기택	한성건	정지혜	허신열	황경순	황원순	황자순			

감사헌금

김병대	조경숙	김필순	김해선	김향자	김혜영	박병구	김인순	박옥순	박옥식
박재영	이현정	신진식	변혜정	이계선	이소순	이순이	이은옥	이지희	임선양
정복순	최순이	추은총	한선희	환경부	무명17				

녹색꿈헌금

김혜진 윤미경 윤수진 이미정 이승지 임설희 무명3

생일감사헌금

서은혜 송예담 이정은

속 명	인도자	모일 곳	속 명	인도자	모일 곳
예루살렘	박성희	방학	청파1속	김재흥	교회
안 디 옥	최경미		청파2속	송형운	
가 나 안	장영숙		청파3속	하현철	
베 다 니	박홍재		청파4속	김정민	
시 온	권미숙		청파5속	장영숙	
에 베 소	백혜숙		청파6속	신진식	
빌 립 보	곽권희		청파7속	김재환	
가버나움	안홍숙		청파8속	이범석	
나 사 랫	김경혜		청파9속	김인걸	
			청파10속	장영숙	

- 우리교회의 주보는 재생용지를 사용하여 만듭니다 -

개울

개울은 제가 그저 개울인 줄 안다
 산골짜에서 이름 없는 돌멩이나 매만지며
 밤에는 별을 안아 흐르고 낮에는 구름을 풀어
 색깔을 내며 이렇게 소리 없이
 낮은 곳을 지키다 가는 물줄기인 줄 안다
 물론 그렇게 겸손해서 개울은 미답다
 개울은 제가 바다의 핏줄임을 모른다
 바다의 시작이요 맥박임을 모른다
 아무도 눈여겨보아주지 않는
 소읍의 변두리를 흐린 낮빛으로 지나가거나
 어떤 때는 살아 있음의 의미조차 잊은 채
 떠밀려 서쪽으로 서쪽으로 가고 있는 줄로 안다
 쏘가리나 피라미를 키우는 산골짜 물인지 안다
 그러나 가슴속 그 물빛으로 마침내
 수천수만 바닷고기를 자라게 하고
 어선만한 고래도 살게 하는 것이다
 언젠가 개울은 알게 될 것이다
 제가 곧 바다의 출발이며 완성이었음을
 멈추지 않고 흐른다면
 그토록 꿈꾸던 바다에 이미 닿아 있다는 걸
 살아 움직이며 쉽 없이 흐른다면

- 도종환

▪ 주님의 교회를 섬기는 이들 ▪

담임목사 : 김기석	부담임목사 : 김재홍 이범석 신진식
원로전도사 : 박옥식	전도사 : 장영숙
소속목사 : 한인철 한정애	
원로장로 : 윤정덕 강인식 김철수 구성실 조병무 방문성 윤석철	
장로 : 한완식 한상익 김인걸 박홍재 김정민 하현철	
지휘 : 강석남 안홍숙	반주 : 최윤선 김수진 유청빈 김진선
차량 및 교회관리 : 김현동	

2부찬양	양	452.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다 함께
♣	봉헌	317. 내 주 예수 주신 은혜 (1,5절)	다 함께
♣	봉헌기도		담임목사
	공동체 소식		담임목사
♣	평화의 인사		다 함께
♣	보냄의 말씀		다 함께
인도자: 교우 여러분, 이제 평안히 돌아가십시오. 복음의 말씀을 들었으니 참 자유인답게 사십시오. 세상의 그릇된 흐름을 따라가지 말고 예수님을 따라 사십시오. 귀하고 아름다운 것을 힘써 지키며 사십시오.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사랑하며 사십시오.			
다함께: 아멘. 세상의 그릇된 흐름 앞에서 당당히 맞서며 살지 못했던 지난날의 모습을 반성합니다. 이제 아리마대 요셉처럼 귀한 것을 지키기 위해 위험을 무릅쓰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을 마음 깊이 품고 주님께서 걸어가신 길을 뒤따르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인도해 주십시오. 아멘.			
♣	찬양	635. 주의 기도	다 함께
♣	축복		담임목사

주일 오후 집회	수요일 집회
청파성서학당 / 강의 : 김기석 목사	낮 집회 / 설교 : 김기석 목사 저녁집회 / 떼제 찬양과 기도회

다음 주 예배위원	설교		기도	성경봉독
	1부	김기석 목사	공동기도	인도자
	2부	김기석 목사	김기석 목사	이성범 집사

7월	1부 영접위원	이부용 박숙미			
	1부 헌금위원	하현철			
	2부 영접위원	김인걸	윤성종	박기영	주은경 김윤정 김경혜 홍춘숙
	2부 헌금위원	한완식 정경례			

믿음으로 읽는 글

일생을 건 응낙과 단순 소박함

1949년 공동체의 첫 형제 일곱 명이 일생 동안 공동체 생활과 독신, 그리고 아주 소박한 삶을 살겠다고 서약했다.

“주 그리스도께서는 그대에 대한 자비와 사랑 안에서 그대를 선택하시어 교회 안에서 형제적 사랑의 표지가 되게 하셨습니다. 주님은 그대가 형제들과 함께 공동체의 비유를 실현하도록 그대를 부르십니다.” (한 형제가 종신 서약을 할 때 원장이 들려주는 훈화)

여러 해 동안 함께 살면서 겪은 모든 체험을 통해 우리는 하느님께 일생을 걸고 “예”라고 대답하는 모험을 감행할 수 있다는 결론을 얻었다. 우리는 완전하게 잘 준비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우리 자신의 힘만으로 견디어나갈 능력도 없다는 것을 알았다. 하지만 우리가 “예”하고 받아들이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비록 우리에게 없을지라도 매일매일 우리에게 주어질 것이라는 것도 알았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했다. “성령께서 충만하게 함께하시어 우리가 약속과 헌신한 대로 살 수 있도록 해주신다. 모든 것은 필요한 만큼 차츰차츰 주어질 것이다.”

우리가 공동체 생활에서 기대하는 것이 무엇인지 스스로 물어본다면, 나는 이렇게 대답할 것이다. 다른 이들을 위해 우리가 책임을 감당할 수 있는 삶, 표현과 만남과 대화, 집을 꾸미는 것, 손님맞이 등 모든 면에서 아주 단순 소박한 삶, 단순한 언어와 같아서 사람들이 복음의 징표를 알아보는 그런 삶이라고.

우리의 삶은 다른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상황에 맞추어 변화를 받아들이는 융통성이 필요하다. 사실 세월과 더불어 사람들이 딱딱하게 경직되는 것도 사실이지만, 더 개방적이고 더 다가가기 쉬운 사람이 되는 것 역시 가능하다.

우리가 공동기도에 참석하기 위해 교회에 들어설 때면 마음속에 감사하는 마음이 넘친다. 가장 중요한 것이 다 여기에 주어졌다. 저녁에 기도를 마치고 젊은이들과 만난 다음, 보통 밤 10시 30분쯤 부엌으로 돌아오면 형제들이 기다리고 있다. 우리는 하루 동안의 생활에 대해 이야기한다. 아주 아름다운 순간이다. 우리는 정말 기꺼운 마음으로 함께 살아간다. 마지막으로 모두 일어서면 나는 한 형제에게 어떻게 기도하면 좋을지를 묻는다. 다 함께 짧게 기도한 다음 나는 형제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밤 인사를 한다. 우리 삶은 서로에 대한 신뢰로 가득 차 있다. 이 공동체 생활은 우리 사이에 조금씩 만들어져 왔고 그 과정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복음서에서 예수님이 하신 첫 말씀 가운데 하나는 “마음이 단순한 사람은 행복하다”는 것이다. 자신의 삶을 단순화하면, 질병과 가난, 배고픔이 있는 곳에서 가장 가진 것 없는 사람들과 나눌 수 있게 되고 아픔을 덜어 줄 수 있다. 폐지에 살든 다른 대륙에서 가장 가난한 이들과 함께 살든 우리 형제들은 단순 소박한 삶으로 부름 받았다는 사실을 늘 자각하고 있다. 우리는 그런 삶을 산다고 해서 매일 손님을 맞이하지 못하는 법은 없다는 것을 발견했다. 식탁에 너무 많은 것이 있으면 아름다운 손님맞이를 오히려 방해하게 된다.

우리 공동체는 기부도 유산도 선물도 아무것도 절대로 남에게 받지 않고 오직 스스로 일해서 살아가기로 서약했다. 가난의 정신은 불품없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창조의 소박한 아름다움 속에 배치하는 데 있다. 단순 소박함의 정신은 평온한 기쁨과 심지어 즐거움 안에서 더 잘 드러나지 않는가?

단순한 마음을 지닌 사람은 현재의 순간을 살아가려 하고 매일매일을 하느님의 오늘로서 맞이하려 노력한다. 만일 단순 소박함에 뜨거운 자비심이 더해지지 않는다면 그것은 빛이 없는 그늘에 지나지 않는다. 만일 아주 단순한 생활이 쓰라림으로 가득 차고 남을 판단하는 자세를 동반한다면 오늘의 기쁨은 어디서 찾을 수 있겠는가?